

전라북도 공정무역 활성화 방안

“오늘 아침을 다 먹기 전에, 당신은 이미 세계의 절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우주가 형성된 방식입니다. 이 기본적인 사실을 인식하기 전까지 지구에 평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전희진 부연구위원_여성정책연구소
황영모 연구위원_산업경제연구부
전아람 전문연구원_여성정책연구소

이 자료는 전북연구원 정책과제로 수행한
“전라북도 공정무역 활성화 방안” 일부를 재구성하여 작성하였음

1. 들어가며: 공정무역의 정의와 이론적 접근

공정무역운동은 우리의 지역 공동체가 지구촌의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방식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우리의 소비가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성찰하여 빈곤감소, 생태계 보존, 노동자의 인권, 권리 향상을 위한 작은 실천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회적 운동이다. 공정무역은 기존 관행무역이 야기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경제적 이익에만 기반한 선택이 아닌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선택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때문에 이 운동은 공정무역을 통해 생산국과 소비국에 가져오는 다양하고 장단기적인 이익에 대해 고민하고, 상품의 생산, 유통, 가공, 물류, 판매, 소비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작은 변화가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실천적 믿음에 바탕을 둔다.

<공정무역의 정의 (FINE¹⁾, 2004) (김선화·장승권, 2017)>

- 공정무역은 대화와 투명성, 존중에 기초하여 국제무역에서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거래기반의 파트너십이다.
- 공정무역은 특히 저개발국가에서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거래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 공정무역단체는 소비자들의 지지를 얻어 생산자를 지원하고 인지도를 높이는 활동을 지원하며, 관행무역의 규칙과 관례들을 변화시키는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공정무역은 경제 상황이 열악한 나라의 농민과 노동자들에게 일하는 무소의 삶이 아닌, ‘독립농’의 희망을 제시하고, 협동적·연대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우며, 아동과 여성들에게 지속가능한 삶의 양식을 제공하는 실천의 의의를 지니고 있다(강정희, 2010).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경제 대국으로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 놓인 지구촌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이나, 자원고갈에 대한 책임, 동시에 가난한 나라의 노동력 착취에 기반한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하는 책임감을 지니면서(강정희, 2010), 공정무역운동이 확대되게 된다.

2. 공정무역의 역사와 현황

공정무역의 기원은 1950년대의 유럽과 미국 내 자선단체들과 NGO를 통한 대안적 무역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 국제적인 맥락에서 공정무역은 세계공정무역기구(WFTO) 모델과 국제공정무역기구(Fairtrade International) 모델로 나누어지면서 발전했는데, 공정무역 가치를 중시하는 전자와 공정무역 관행의 확대를 통해 좀 더 많은 생산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후자의 입장이 충돌하는 동시에 상호조화를 통해 발전했던 과정이었다. 실용주의에 근거한 국제공정무역기구의 확대는 공정무역의 양적인 성장은 이끌었지만, 공정무역운동의 이미지를 이용하려는 기업에 대해 편한 면죄부를 주었다는 주장과 같은 논의가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공정무역이 말하는 생산자에게 주는 도움이 그 약속에 비해 미흡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의, 가격 프리미엄 지급을 통한 생산자 공동체에 대한 재투자가 실제 잘 작동하는지에 대한 추적 등 다양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공정무역운동이 가지고 있는 그 약속과 진행에 있어서 다양한 고려사항이 등장하면서, 공정무역 관련 이론적 논의가 확장됨과 동시에 실천 전략 역시 다양화되게 된다.

1) FINE은 국제공정무역기구 (Fairtrade International: FI), 세계공정무역기구 (World Fair Trade Organization:WFTO), 유럽공정무역연합 (The European Fair Trade Association: EFTA), 유럽월드숍네트워크 (Network of European World Shops: NEWS)가 모인 것으로, 공정무역운동을 실천한다.

공정무역은 공정무역 인증제도 도입 이후 급격히 발달하였고,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에 따르면, 전 세계 공정무역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12조에 이르고 있다. 국내의 공정무역운동은 2009년 아름다운 가게에서 수공예품을 팔면서 시작되었고, 한국 내 많은 사회운동 단체나 생활협동조합운동 단체 등의 참여로 확대되었다.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는 2012년 설립되면서 국제공정무역기구의 다양한 물품과 인증시스템을 기반으로 자신의 세력을 확대하게 된다. 또한, 지역운동으로 공정무역운동이 등장하면서 지역 정부, NGO 단체들과 협동하면서 발전하게 된다.

한국공정무역협의회에 속한 매출액의 합계는 2016년 말 기준 165억원이고(쿠팡협동조합 2017),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Fairtrade KOREA)의 인증제품의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468억원에 달한다. 한국 시장의 경우 2016년 대비 57% 성장한 297억 원의 공정무역 판매량을 기록했으며, 2017년에는 약 400억 원으로 크게 성장했다 (뉴스 위크 2019. 6.8.)

<국내외 공정무역 판매 현황>



* 자료: <https://www.fairtrade.net/impact/global-sales-overview>, <http://fairtradekorea.org>

2003년 국내에 공정무역이 소개된 이후, 국제개발협력단체, 사회적기업, 재단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에서 공정무역제품을 판매하고, 인식운동을 활발하게 진행하면서, 공정무역마을운동의 형태로 확대되었다. 2017년 10월 인천시가 국내 첫 공정무역도시로 인증되고, 2019년 10월 27일에는 재인증을 달성했다(라이프인, 2020. 1. 1). 2018년 서울시가 세계 최대의 공정무역도시로 정식 인증되었고(라이프인, 2018, 7. 9), 경기도는 2019년 10월 25일 공정무역도(道)로 인증되었다. 대부분 수도권을 중심으로 성장하던 공정무역운동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전라북도에서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처음으로 2017년 '전라북도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공정무역운동의 지원을 시작하였다. 전라북도 내 공정무역 물품을 판매하는 매장²⁾은 아름다운 가게, 자연드림 매장을 비롯한 41개를 확인할 수 있고, 공정무역 원두를 공급하는 프랜차이즈 매장으로는 스타○○(전라북도 내 19개 매장³⁾)와 엔제○○○(전라북도 내 25개 매장⁴⁾)가 있다. 또한 공정무역대학으로 2019년 12월 16일 전주대학교가 인증을 받으면서 지역 내 공정무역 확대에 힘쓰고 있다.

2)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 (<http://fairtradekorea.org/>)와 한국공정무역협회(<http://fairtrade.or.kr/>) 사이트의 안내와 이 연구 과정에서 발견된 매장을 종합한 결과이다.

3) 2019. 8. 28. 현재, 스타○○○ 사이트 확인 https://www.istarbucks.co.kr/store/store_map.do

4) 2019. 8. 28. 현재, 엔제○○○ 사이트 확인 http://www.angelinus.com/Shop/Shop_List.asp

3.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과 태도

공정무역 제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공정무역 제품 구입 이유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좋은 취지에 동참하고 싶어서' 제품을 구입한다는 응답이 5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주)마кро밀엠브레인, 각년도).

<공정무역 제품 구입 이유>

(단위: %)

항 목	2014	2015	2016
좋은 취지에 동참하고 싶어서	57.4	57.5	58.8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의미가 좋아서	53.0	52.9	58.2
생산자를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어서	48.2	50.2	44.4
제품의 원료가 좋아서	41.5	36.3	37.7
기부보다 실용적인 느낌이라서	21.5	22.1	26.9
제품의 이미지가 좋아서	17.3	21.0	20.2
지속가능한 사회운동의 모델이라서	18.8	19.2	16.9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15.5	15.0	12.8

자료: (주)마кро밀엠브레인, 각년도, 공정무역 관련 인식 조사.

전주시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공정무역에 대하여 긍정적인 기대와 태도를 가지고 있어, '공정무역 제품 구매는 좋은 일'이라는 것에 전체 응답자의 96.8%가 동의하여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그 외 '공정무역 제품 구매는 유익한 일', '공정무역 제품 구매는 기분 좋은 일', '공정무역 제품 구매는 현명한 일'이라는 항목에 90% 이상의 응답자가 동의하여 공정무역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공정무역에 대한 태도와 기대>

(단위: %)

항 목	정말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공정무역 제품 구매는 현명한 일이다	27.7	64.8	6.9	0.6
공정무역 제품 구매는 좋은 일이다	32.0	64.8	2.6	0.6
공정무역 제품 구매는 유익한 일이다	30.4	62.8	5.5	1.2
공정무역 제품 구매는 기분 좋은 일이다	32.0	60.9	6.3	0.8
공정무역 제품 구매는 개도국 근로자의 삶을 향상시킨다	35.0	60.3	4.2	0.6
공정무역 제품 구매는 아동노동을 감소시킨다	30.6	52.2	16.2	1.0
공정무역 제품 구매는 개도국 사회를 전반적으로 좋게 한다	25.5	67.0	7.3	0.2
공정무역 제품 구매는 농부와 생산자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33.6	63.2	2.8	0.4
공정무역 제품 구매는 개도국 환경보호에 도움이 된다	24.9	60.9	13.6	0.6
공정무역 제품 구매를 통해 윤리적 책임을 진다는 느낌이다	26.9	58.5	13.4	1.2

자료: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2017.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과 구매태도에 관한 의식조사

전라북도 내의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조사와 면접에 따르면, 도내 공정무역 제품을 취급하는 판매점의 수가 적어 공정무역 물품에 대한 노출이 적음을 추론할 수 있었고,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구매의욕이 있어도 공정무역 제품을 취급하는 매장이 부족하거나 혹은 구입 경로를 모르는 경우가 과반을 넘었다. 윤리적 소비의 선순환에 대한 인식의 향상에 부응할 수 있는 공정무역 기반 확대를 통해 공정무역 운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요청된다.

4. 공정무역 활성화 방안

공정무역 참여주체인 지방정부, 가공제조부문, 생협이나 소비자단체 등의 운동단체, 판매영역, 그리고 소비자 각각은 공정무역에 대한 이해와 참여 목적 등이 다르고, 이들의 효율적 조합으로 운동의 성과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참여자에 따른 각각의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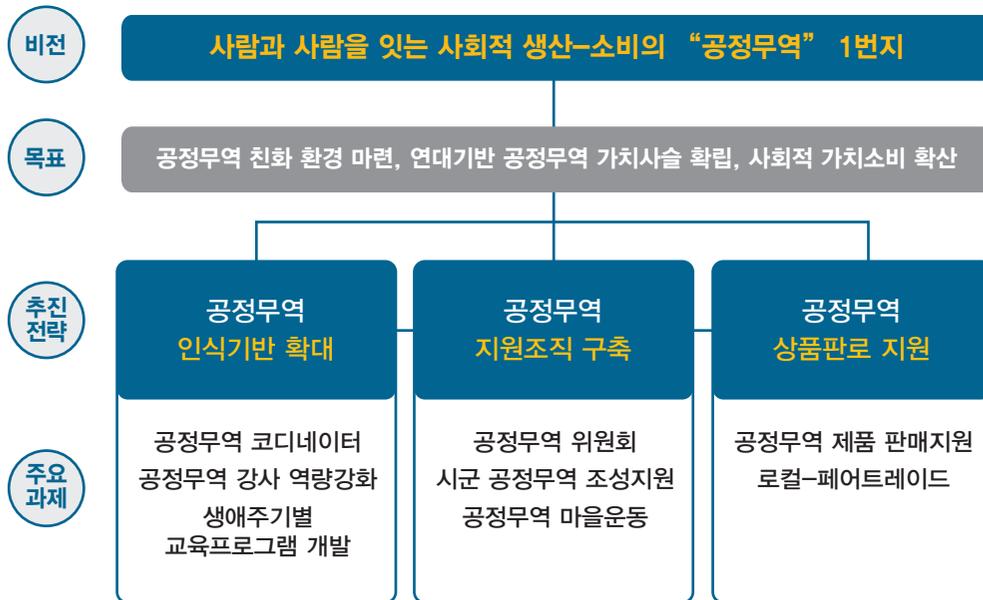
<공정무역 참여주체별 활성화 전략>



가공제조부문의 공정무역 상품 확대는 공정무역 인증제도 지원, 공정무역상품 개발 지원, 공정무역 리빙랩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지방정부는 공정무역 지원조직 구축의 전략이 요청되는데, 이는 공정무역 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 공정무역 홍보교육관, 공정무역 위원회 활동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판매영역에서는 공정무역의 판매 플랫폼을 확대하는 방안이 시급하여, 공정무역 온라인 플랫폼 구축, 공정무역 수요기반의 확대, 공정무역 공공조달 방안 등이 존재한다. 사회운동조직에서는 공정무역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공정무역 마을운동, 공정무역 코디네이터 양성, 국제 교

류연대의 강화 등의 방안을 구상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영역에는 공정무역의 사회기반 확대를 위해, 초중고 공정무역 통합교육 시행, 공정무역 시민의식 개선 사업, 윤리적 소비 문화의 정착을 위한 캠페인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전라북도 공정무역 비전, 목표, 추진전략>



전라북도에서는 공정무역의 비전 “사람과 사람을 잇는 사회적 생산-소비의 “공정무역” 1번지”와 “공정무역 친화 환경 마련”, “연대 기반 공정무역 가치사슬 확립”, “사회적 가치 소비 확산”이라는 3가지 목표에 따라, 도에서 진행할 수 있는 추진전략과 과제를 구체화하였다. 공정무역 인식기반 확대를 위해 공정무역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 공정무역 강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활동이 가능하다. 공정무역 지원조직 구축을 위해서는 공정무역 위원회의 적극적 지원과, 시군 공정무역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지역 공동체 내 공정무역 마을운동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또한 공정무역 상품 판로 지원을 위해서는 공정무역 제품 판매점 확대와 지역의 생산품과 연결된 로컬-페어트레이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다.

지역에 있어서 공정무역의 활성화는 공정무역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협력을 통해, 하나의 정답이 아닌, 다양한 활동 속에서의 공정무역 가치의 실현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작은 움직임으로 구성된다. 이 정책 연구를 통해 공정무역이 추구하는 윤리적 선순환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 강정희. 2010. 『공정무역 희망무역: 아시아의 여성 공정무역을 중심으로』. 동연
- 김선화 · 장승권. 2017. “사회적경제에 기반한 공정무역 교육: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인력양성 사례”.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 학술연구발표회 발표논문집
- 뉴스웍스. 2019. 6. 8. “자선 아닌 ‘착한 소비’, 공정무역에서 시작”
- 라이프인. 2018. 7. 9. “ ‘공정무역도시, 서울’ 달성의 의미: 공정무역도시 선언 6년 만의 성과…32개국 2040개 인증 도시 중 가장 큰 규모 ”
- 라이프인. 2020. 1. 1. “공정무역 현주소, 돌아본 2019: 사회적 가치와 함께 지역으로 확산되는 공정무역”
- (사)한국여성소지바연합전북지회. 2017.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과 구매태도에 관한 인식조사』
- ㈜마크로밀엠브레인. 각년도. 『공정무역 관련 인식조사』

